

《숫, 너만 알고 있어》 독서지도안



‘작은 비밀’이 숲이 되고, 하늘이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아이의 깊은 마음속 비밀을 살며시 꺼내 보이는 그림책!
서석영 작가와 주리 화가가 빚어낸 환상적 동심의 세계!

- 작가_ 서석영 글 · 주리 그림
- 출판사_ 풀과바람(바우솔)

본 독후 활동 자료는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정,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1. 도서 소개

어린 시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나만 간직했던 ‘작은 비밀’ 하나씩은 다들 있었을 거예요. 아이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과 감정을 마음속에 숨깁니다. 말로 꺼내지 못한 바람, 괜찮은 척 삼킨 아픔, 들키고 싶지 않은 진짜 마음까지.

《췌, 너만 알고 있어》는 어린이의 속마음을 ‘비밀’이라는 말로 살며시 건네는 그림책입니다. 서석영 작가는 처음 보는 강아지에게 꼬리를 흔들고 싶던 마음, 엄마를 재우려 일부러 눈을 감는 귀여운 거짓말 등 어린이의 무구한 감정을 섬세한 문장으로 포착했습니다. 여기에 주리화가 특유의 환상적 연출이 더해져, 일상의 비밀이 거대한 상상의 날개가 되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아이의 엄마와 산책을 나섭니다. 강아지, 산딸기, 고양이… 산책길에서 새로운 존재를 만날 때마다 엄마에게 말하지 않거나 못하는 생각, 마음, 바람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아이는 속으로만 간직했던 생각들을 독자에게만 살짝 귀띔합니다. “췌, 너만 알고 있어.”로 반복되는 고백 덕분에 독자는 주인공과 단둘이 비밀을 공유하는 특별한 친구가 됩니다.

글이 아이의 내밀한 ‘비밀’과 속마음을 텍스트로 촘촘히 엮어낸다면, 그림은 그 비밀이 폭발하여 숲이 되고 하늘이 되는 과정을 시각적 판타지로 화려하게 펼쳐 보입니다. 독자는 아이의 귓속말을 따라 걷다가 어느덧 광활한 숲과 하늘을 마주하며, 작고 사소한 관찰이 어떻게 거대한 상상의 날개가 되는지를 놀라운 예술적 경험으로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2. 지도 개요

- 대상 : 초등 1~2학년
- 관련 교과 영역 : 1학년 바슬즐 <사람들>, <탐험>, <하루>, <약속>, <상상> 공통
2학년 바슬즐 <나>, <자연>, <마을>, <계절> 공통
1학년 1학기 국어 5. 반갑게 인사해요
1학년 2학기 국어 1. 기분을 말해요
4. 감동을 나누어요
5. 생각을 키워요
2학년 1학기 국어 1. 만나서 반가워요!
4. 말의 재미가 솔솔
5. 마음을 짐작해요
2학년 2학기 국어 1. 장면을 상상하며
4. 마음을 전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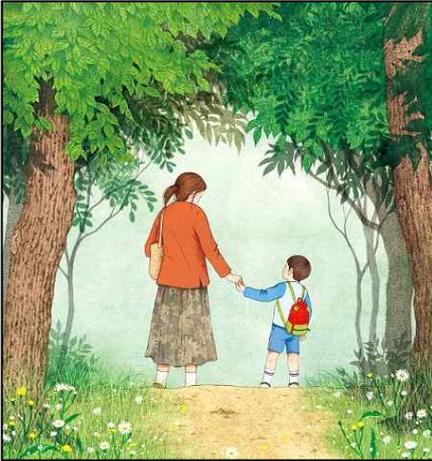
• 지도 요점 :

산책길에서 만난 고양이와 나란히 앉아 별을 찌고 싶던 마음, 사실은 아팠던 다리, 계속 머물고 싶었던 숲속 풍경까지. 주인공 아이는 “췌, 너만 알고 있어.”라며 엄마도 모르는 진심을 오직 독자에게만 고백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간직했던 또는 간직하고 있는 ‘작은 비밀’이 있나요? 책을 읽고, 책 속 주인공처럼 몰래 비밀을 이야기해 보세요!

3. 책 이해하기

(1) 주인공 아이는 엄마와 무엇을 나왔나요?



- ① 산책
- ② 등교
- ③ 나들이
- ④ 소풍

▶ -----

(2) 풀숲에서 무엇을 발견했나요?



- ① 토끼
- ② 산딸기
- ③ 부엉이
- ④ 고슴도치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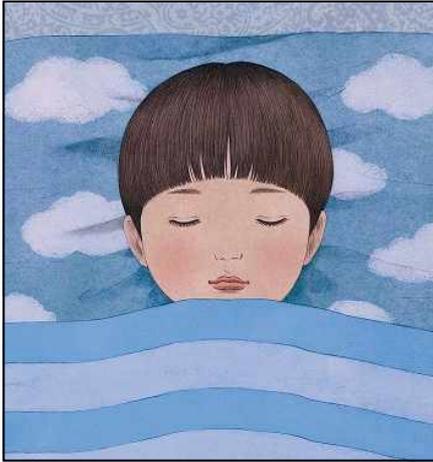
(3) 아이는 산책길에서 만난 고양이와 사실은 무엇을 함께 하고 싶었나요?



- ① 서로 털 비비기
- ② 악수하기
- ③ 나란히 앉아 별 찌기
- ④ 고양이 체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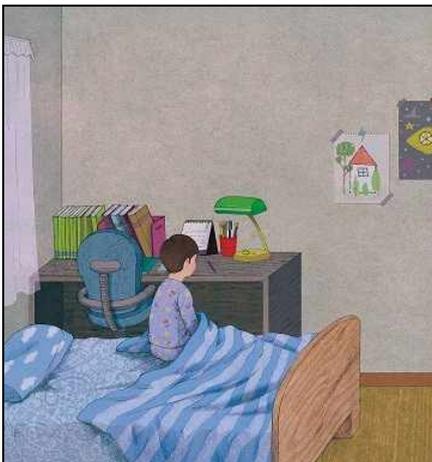
(4) 아이는 왜 일부러 잠든 척 눈을 감았나요?



- ① 몰래 놀려고
- ② 꿈나라 친구를 만나려고
- ③ 과자 먹으려고
- ④ 엄마를 재우려고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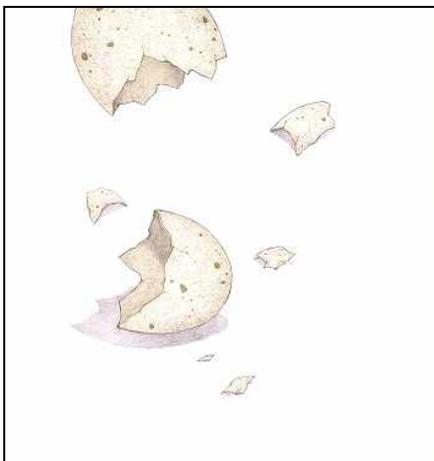
(5) 아이가 쉽게 잠들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 ① 숨겨둔 과자가 생각나서
- ② 수플 등지 속, 알 세 개가 떠올라서
- ③ 친구가 그리워서
- ④ 아빠가 보고 싶어서

▶ -----

(6) 아이가 다리를 쭉 뻗고 엄청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알이 모두 사라져서
- ② 친구들이 모두 도망쳐서
- ③ 길을 잃어버려서
- ④ 깨진 껍질만 남아 있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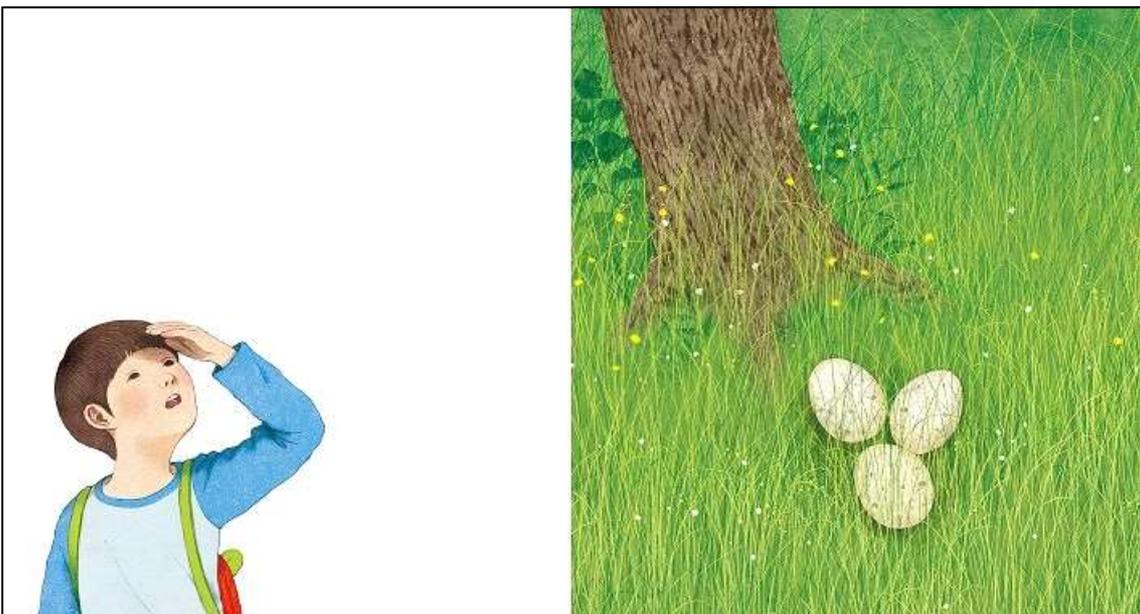
▶ -----

4. 확장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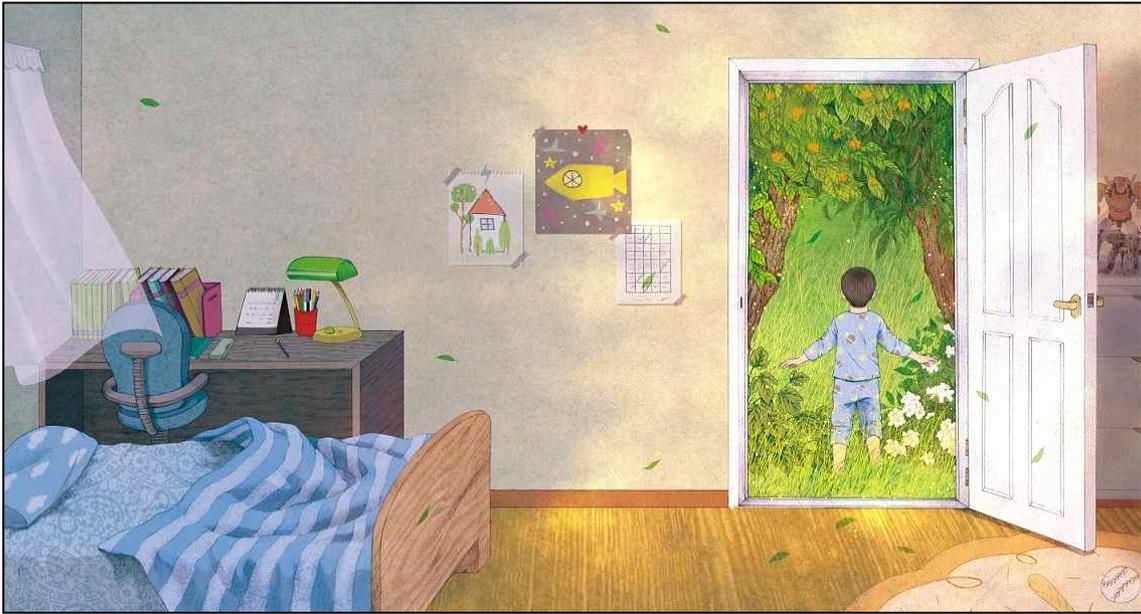
(1) 강아지, 산딸기, 고양이... 산책길에서는 새로운 친구를 만나요. 여러분은 산책길에서 어떤 친구나 사물을 만났나요?



(2) 숲속에서 발견한 새알은 주인공 아이에게 설렘과 기대를 안겨 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산책길에서 새알을 발견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3) 잠들지 못하는 밤, 주인공 아이가 방문을 여는 순간 평범한 방은 온통 싱그러운 초록빛 숲으로 바뀌어요. 만약 상상의 나라로 모험을 떠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모험을 떠나고 싶나요?



[정답]

책 이해하기

- (1) ① 산책 | (2) ② 산딸기 | (3) ③ 나란히 앉아 별 쬐기 | (4) ④ 엄마를 재우려고 | (5) ② 수풀 등지 속, 알 세 개가 떠올라서 | (6) ④ 깨진 껍질만 남아 있어서

확장활동

- (1) 도토리를 물고 가는 아기 다람쥐를 만났어요.
뽀족뽀족 멋진 잎을 뽐내는 커다란 소나무를 만났어요. 등
- (2) 누구의 알인지 너무 궁금했을 거 같아요.
알이 안전한지 주위를 살펴봤을 거예요. 등
- (3) 구름 놀이터로 떠나 잃어버린 풍선 친구들을 만날 거예요.
바다로 떠나 돌고래와 멋진 수영 대결을 펼치고 싶어요. 등